

이은(李垠)-나시모토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의 결혼 서사를 통한 ‘내선(內鮮)결혼’의 낭만적 재현 양상 연구*

이영아**

1. 서론
2. 이은-나시모토미야 마사코 결혼 서사의 낭만화 전략
 - 2-1. 결혼의 예정(豫定)
 - 2-2. ‘혼사장애’로서의 황실전범 개정 과정
 - 2-3. 일선동조(日鮮同祖)의 역사적 재구성
3. 낭만적 사랑과 결혼으로서의 ‘내선결혼’
 - 3-1. 셀러브리티(celebrity)로서의 이은과 이방자
 - 3-2. 일선가정(日鮮家庭)의 ‘스위트홈’ 재현
 - 3-3. 이은-나시모토미야 마사코 결혼을 통한 내선결혼의 대중화 양상
4. 결론

국문요약

1920년에 거행된 조선의 왕세자 이은과 일본의 황족 나시모토미야 마사코의 결혼은 이씨 왕조의 종말을 고하려는 의도였을 뿐 아니라 조선이 일본의 피식민국이라는 사실을 명시화하기 위한 책략이었다. 그럼에도 이 결혼은 『매일신보』를 통해 대중들에게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의 서사로 포장되었다. 이를 위해 『매일신보』는 이들의 혼약 발표, 혼사장애요소, 시련의 극복, 운명론적 미화, 화려한 결혼식의 준비,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전망 등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중적 서사의 문법을 충실히 치밀하게 따랐다. 특히 화려한 결혼식과 선남선녀의 애틋한 결혼 전 교류의 모습 등은 이들을 ‘스타’로 만들었고, 대중들로 하여금 이들의 아름다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B00089).

** 서울대 강사

모습을 보면 정치적 현실의식보다 감상적 동경의 감정이 앞서도록 조장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 ‘선전’이 어떠한 효과를 낳았는지 축하품 모집, 축하시 공모 등으로 확인하려는 작업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낭만적 결혼의 서사는 1919년 1월의 고종의 승하와 3·1 운동을 거치면서 ‘허구’임이 판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1920년 창간된 민족지들에 의해서는 주인공을 이은과 마사코로 하는 ‘해피엔딩’의 낭만적 사랑-결혼의 서사가 아니라, 민갑완과 이은을 주인공으로 하는 ‘비극적 서사’가 새롭게 조명되기도 하였다. (주제어 : 이은, 나시모토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 내선결혼, 매일신보, 대중적 서사)

1. 서론

일제의 내선결혼(内鮮結婚)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38년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 전쟁의 지속으로 일본제국의 존립에 위기감이 고조되어감에 따라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소멸시키고 조선을 영구한 일본의 식민지로 주저앉게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책략이 창씨개명과 내선결혼의 장려였다. 그러나 사실 내선결혼 정책의 처음 출발은 이보다 20년 앞선 1920년 4월 28일에 거행된 이은(李垠)과 나시모토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²⁾의 결혼에서부터였다.

기존의 연구가 1930년대 말의 내선결혼 정책에 집중하여 축적됨으로써³⁾

-
- 1) 장용경, 「일제말기 내선결혼론과 조선인 육체」, 『역사문제연구』 제18호, 2007.
 - 2) 보통 나시모토미야 마사코는 한국에서는 ‘이방자(李方子)’로 불린다. 『매일신보』에서는 모든 일본인의 이름을 한자의 음차로 표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본궁 방자(梨本宮方子)’로 표기했었던 데다가, 그녀가 이은과 결혼한 뒤에는 남편을 따라 성도 이(李)씨로 바꾸고 이름도 조선식으로 ‘방자’라 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녀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결혼 전 이름인 ‘나시모토미야 마사코’, 혹은 이름 부분만 적어 ‘마사코’로 표기하였다. 단 『매일신보』의 인용문 등에서 그녀를 ‘방자’라고 부르는 부분은 원문대로 표기하였다.
 - 3) 내선결혼, 내선일체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이 꽤 많은 연구업적이 있다. 김미영, 「일제강점기 내선연애(결혼)소설에 나타난 일본여성에 관한 표상 연구」, 우리말글, 2007.12; 김양선, 「식민 시대 민족의 자기 구성방식과 여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003.12.; 박수빈, 「이광수의 내선일체지향소설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10; 조윤정,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욕망의 간극」, 한국현

그동안 1920년의 이은-마사코의 결혼과 이 시기에 대두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결합을 권장하는 이데올로기 조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이를 결혼은 조선왕조의 쇠락 과정을 보여주는 비극적 서사로서, 연구논문⁴⁾보다는 소설, 팩션, 평전, 자서전 등으로 더 자주 재구성되어 왔다.⁵⁾

1930년대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정책들이 전방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내선결혼장려는 그 자체만의 특수한 논리 구조를 갖기 보다는 조선 민족말살정책 중의 일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이 시기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을 장려한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내선결혼자 표창 외의 어떠한 실천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활상, 언어사용상의 내선일체가 된 후에야 내선결혼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등 내선결혼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였다.⁶⁾

반면 이은의 결혼은 조선의 황태자가 일본의 황족과 결합함으로써 500년 간 이씨 왕조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실질적 소멸을 재현

대문학연구, 2009.4; 김석란, 「재한일본인 아내의 결혼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 일본어교육학회 일어교육, 2007.12.; 박성진, 「일제말기 녹기연맹의 내선일체론」, 한국 근현대사 연구, 1999; 오오야 치히로, 「잡지 내선일체에 나타난 내선 결혼의 양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6; 장용경, 「일제말기 내선결혼론과 조선인 육체」, 『역사문제연구』 제18호, 2007 등. 그러나 이를 연구는 모두 일제 말기의 내선결혼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다.

4) 이은의 결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논문으로는 송우혜, 「이은의 정략결혼 연구-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2007; 노영희, 「이방자의 자전을 통해 본 한일근대사에 대한 자각과 한계」, 일어일문학연구, 2001.11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이은의 결혼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1910~20년대의 내선결혼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는 와타나베 아쓰요, 「일제하 조선에서 내선결혼의 정책적 전개와 실태-1910~2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2004; 최석영, 「식민지시기 ‘내선결혼’ 장려문제」, 일본학연보, 2000이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은의 결혼은 대부분 평전, 팩션, 자서전 등의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5) 대표적인 서사물로 혼다 세츠코 서석연 역, 『비련의 황태자비 이방자』, 범우사, 1989; 이방자, 『비련의 왕비』, 신태양사, 1960; 이방자, 『세월이여 왕조여』, 정음사, 1985; 정병준, 『제국의 후예들』, 황소자리, 2006; 오타베 유지, 황경성 역, 『낙 선재의 마지막 여인』, 동아일보사, 2009; 송우혜, 『왕세자 혼혈결혼의 비밀』, 푸른역사, 2010. 등이 있다.

6) 장용경, 「일제말기 내선결혼론과 조선인 육체」, 『역사문제연구소』 제18호, 2007.

한 상징적 사건으로서 내선결혼의 선전 과정이 서사적인 방식으로 치밀하게 진행된다. 특히 이들의 결혼설이 등장한 1916년부터 1919년 1월까지 『매일신보』가 행했던 조선과 일본 지배계급의 결혼에 대한 홍보와 선전 과정은 조선총독부가 이씨왕조를 일본 귀족의 일원으로 격하시키고 스스로를 조선의 지배권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의도와 별개로 『매일신보』에서 이 결혼은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서의 성격보다 상류층 선남선녀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인 듯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보도되었다.⁷⁾ 그 덕분에 대중들이 정치적 의식 없이 이들의 결혼 서사를 바라보면 단순히 낭만적인 연애-결혼의 담론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왕실의 정략적 내선결혼이라는 한국으로서는 초유의 굴욕적인 사건의 본질이 호도되었다.

본고에서는 식민권력의 문제를 실체보다는 실천 및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식민권력의 자기재현적 실천과 그 사회적 효과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총독부가 일본제국의 행정적 체계나 지정학적 통치의 범위에서 차지한 법적·행정적·정치적 지위의 문제나, 총독부가 한반도에서 작동한 조직적·물리적 실체로서의 속성에 대해서는 일단 ‘괄호치기’하고 그것이 국내외의 독자·관객·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재현적 미디어의 장에서 하나의 담론으로서 어떻게 존재하였으며 어떠한 재현적 효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식민권력의 국가효과’로서 분석해보고자 함이다.⁸⁾ 기존에는 이은의 결혼 과정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fact)의 자료였을 뿐, 그 재현방식, 서사화·대중화의 ‘전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은의 결혼을 둘러싼 내선결혼의 이데올로기화 과정이 당시 언론 『매일신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재현, 선전되었는지를 1916년부터 1919년까지에 이르는 동안의 담론들을 하나의 ‘서사’로 보고, 그 구체적 내용을 분석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1920년대의 조선 총독부라는 식민권력의 발현 양상을 추

7) 이 점이 그동안 이들의 결혼 과정이 수많은 소설, 팩션, 평전 등의 소재가 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8) ‘국가효과’ 개념의 일본과 관련한 경험적 분석의 실례로서는 한석정, 『민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9;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역, 『화려한 군주』, 이산, 2003 등 참조.

적해보고자 한다.⁹⁾

2. 이은-나시모토미야 마사코의 ‘혼사장애’와 그 극복의 서사

2-1. 결혼의 예정(豫徵)

이은을 일본 황족인 나시모토미야 마사코와 결혼시키기로 했다는 기사가 『매일신보』에 처음 실린 것은 1916년 8월 3일이다.

현금 동경 사관학교에 입학할 시와 문무양도를 공부할 때는 리왕세조연호의 혼의에 드디어 약속을 이행한 일본 황실에서 상당한 배필을 구하는 시리라 흠은 이왕부터 일반인에게 축하해온 바이더니 팔월이 일에는 과연 경사로운 면보가 도달할 것이다. 왕세조비로 결행된 분은 리본궁방조녀왕(梨本宮方子女王)이신데 금년 십륙세 이시며 드훈위류군소장수정왕(守正王)의 장녀이시니 직덕이 겸비할 시기로 황족 여러분중에서도 유명하신 터이라 실로 일반의 경축을 바이로다.¹⁰⁾

이은을 일본 황족과 결혼시키려는 생각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의해 해서 이미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가 안중근의 저격으로 1909년 사망한 이후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이 없다가 1916년에 다시 이 문제에 일본 측에서 거론되어 마사코를 그 배우자로 낙점하게 되었다. 이은에게는 1907년부터 이미 민갑완이 세자비로 간택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혼 상대자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조선의 왕세자를 일본여성과 결혼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기사에서는 “이왕부터 일본 황실 중에서 상당한 배필을 구하시리라” 해왔던 것이 “일반인 추측”하는 당연한 생각

9) 이은의 결혼에 대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송우혜의 「이은의 정략결혼 연구-언론보도를 중심으로」(이화여대 석사, 2007)와 어느 정도 유사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송우혜의 논의가 1910년부터 1920년대까지 이들에 대한 언론보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리하는데에 중점을 둔 반면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혼약이 처음 발표된 1916년부터 1919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보도를 통해 재현된 이들 결혼이 대중에 미친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 「리왕세조비는 리본궁방조녀왕으로 결정됨」, 『매일신보』, 1916.8.3.

이었으며, 이은이 “재덕이 겸비”한 황족 중에서도 뛰어난 여성을 배필로 맞게 되었으니 “일반의 경축할 바”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는 ‘일선동화정책’으로서 일본제국의 책략이자 강요된 결혼이라는 점을 지적한 당시 재미교포 단체가 간행하고 있던 『신한민보』의 다음과 같은 논조와 대조된다.

리왕세자연하(일인이 불으기를)는 명티 二十년 十一월 二十일(광무 一年十一월 二十일)에 탄성하여 본년 二十세에 달한지라. 도선 총독 사니경의는 이번 동경에 온 고희를 타서 덴하의 어비우를 궁가녀왕간에 구한다더라. 한국 황태자 덴하를 일본녀자에게 혼취하게 하여야 된다는 것은 한국 동화의 일종 경칙으로 소위 일본 정직간에 일즉이 창도하든 일이라.¹¹⁾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한국 황태자의 강박 혼의’라고 명명했을 만큼 이 기사는 『매일신보』와 비교해 조선총독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은을 ‘이왕세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인(日人)’의 방식이라면서, 자신들은 ‘한국 황태자’라 칭하고 있는 점이나 조선이 아닌 ‘한국’이라고 부르는 점도 이들의 일제의 강점 현실에 대한 부정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신한민보』의 입장이 아마도 ‘의식 있는’ 조선인들의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조선인들에게 조선의 왕세자가 일본의 황족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민족적 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일신보』는 위의 두 사람의 결혼이 결정된 이후부터 대대적으로 이은과 마사코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낸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결혼을 ‘선남선녀’의 결합으로 미화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당시에도 미인으로 유명했던 마사코의 모친을 거론하며 그녀의 미모를 물려받은 마사코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궁면호는 총명호시고 쪼 온후호시며 비면호는 와도후작(鍋島侯爵)의 영양이신 터 후가 리티리 수도에 공스로 주차중 나으샤 리도즈(伊都子)라 명명호셨슴으로 즉 용모도 화려호시고 쪼 학문과 괴상도 일충 우월호사 직식이 쌍겸호신 터이고 쪼 방조녀왕면호(方子女王殿)도 쪼호 모궁전하에 혈하치 안이호시도록 직식이

11) 「한국황태자의 강박혼의」, 『신한민보』, 1916.7.13.

한가지 회세호시며...¹²⁾

본궁봉시자의 말을 듯건더 녀왕殿호께서는 찬란한 광채가 나시도록 용모가 화려한 읍시며 쪼 겸호야 지괴가 고양한 심으로 봉시자 일동은 항상 칭탄흔다하고 학습원에서는 항상 우승으로 성적을 어드실 뿐 안이라 쪼 「피아노」에 뒤단히 능난한 호시와 미일 탄주한 시며...¹³⁾

그리고 위와 같은 기사와 함께 마사코의 사진도 종종 신문에 게재된다. 신문의 사진 상으로 보아도 그녀가 미인형의 여성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학습원에서 학과 공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피아노, 거문고, 노래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재능이 출중한 재원(才媛)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즉 마사코는 일본인이라는 점 외에는 외모, 학식, 재능 등 모든 면에서 차기 조선 왕의 배필로서 부족함이 없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화의 결과이기는 하나 그녀는 황태자에서 왕세자로 강등된 이은에게 뒤지지 않는 횡족 계급, ‘여왕’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집안의 자제였다. 열여섯



『매일신보』 1916년 8월 3일 두 사람의 결혼 결정에 대한 공식 발표에 게재된 사진.

12) 「方子女王」, 『매일신보』, 1916.8.5.

13) 「王宮慶事에 對호야」, 『매일신보』, 1916.8.6.

의 아름답고 재능 많은 일본 황족 소녀가 이제 성년이 되는 육군 학교 생도인 조선 왕세자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낭만적’이었다. 이러한 점들이 강조되면서 조선의 왕족에게 강요된 일선동화를 위한 정략적 결혼의 성격은 은폐되었다.

2-2. ‘혼사장애’로서의 황실전범 개정 과정

그런데 이들의 결혼을 보다 극적(劇的)으로 만드는 것은 이들 결혼에 내재한 시련의 요소이다. 사랑(결혼)에의 장애가 존재하는 것은 결말의 사랑(결혼)을 더욱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필수적인 서사적 장치이다.¹⁴⁾ 이러한 시련 앞에서 연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를 극복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끈끈하고 위대한 사랑의 결실을 재현해내는 것이다.¹⁵⁾

한국 설화에서부터 현대의 대중소설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는 대중적인 이야기구조 중 하나가 ‘혼사 장애’ 모티프이다.¹⁶⁾ 혼사장애(Hehindernis)란 작품 속의 주인공의 혼사가 어떤 장애 요인으로 말미암아 일단 보류되거나, 일시적인 파국을 초래하고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 이를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인 혼사확인(또는 인정)에 이르기까지의 갈등을 말한다.¹⁷⁾ 혼인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남녀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 그 혼사가 지연되면 독자들은 마음을 졸이며 두 사람의 결합을 희구하게 된다. 그러다가 모든 시련과 고난의 통과제의를 거쳐 다시 결합하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두 사람의 혼인이 좀 더 극적이고 운명적인 것으로 공고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¹⁸⁾

14) 로널드 B.토비아스 김석만 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 풀빛, 1997, 283쪽.

15) 로널드 B.토비아스 김석만 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 풀빛, 1997, 284~301쪽.

16) 김충실, 「신소설에 나타난 혼사장애 양상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80, 105쪽.

17) 이상택, 「낙선재본 소설연구1」,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83.

18) 박두미에 따르면, 한국 설화에서부터 현대의 대중소설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는 혼사장애 서사는 대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1)신랑후보자와 신부후

이은과 마사코도 1916년에 이미 혼약관계가 만천하에 공표되었지만, 순조롭게 결혼에 이른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거행된 1920년까지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전례(前例)’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들의 결혼을 위해서는 제도적 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혼사장애는 혼약의 보도가 나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日韓併合及朝鮮貴族에 關한 明治天皇의 詔書에 基한야 別로히 典儀를 定한야 舉行한 실는지도豫測기 難한다더라”¹⁹⁾라는 말에 복선처럼 암시되어 있었다. 기존의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황실혼가령(皇室婚嫁令)에 의해 혼례를 치르게 될지, 아예 새로운 규정을 정한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의 시기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결혼 규정에 관한 문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해결되었다. 황실전범은 1889년 2월 11일에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황족의 결혼 상대는 황족 또는 특정 화족에 한정되며, 황족 외의 신분에게 시집 간 여자는 원칙적으로 황족 취급을 받지 못했다.²⁰⁾ 그런데 조선의 왕족을 황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 내정 보도가 나간 지 2년 넘는 시간 동안이나 이 규정을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그 구체적 논의는 1916년 9월부터 법학자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가 조선 왕공족에 관한 법률문제를 거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합병 당시에는 조선의 왕공족을 ‘황족의 예의를 갖추어 대우’ 할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황족의 예의를 갖추어’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일본 국내성의 ‘제실(帝室) 제도심의회’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졌고, 이를 두고 이토와 추밀원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일어나기도 했다.

근 2년 동안이나 치열한 정치적, 법률학적 논쟁이 오고간 끝에 1918년 11

보자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는 예징(豫徵), (2)신랑 후보자와 신부후보자의 만남, (3)신랑후보자 혹은 신부후보자가 시련 내지 고난에 부딪힘, (4)혼사를 인정받기 위한 계기가 마련됨, (5)신랑후보자와 신부후보자가 시련, 고난을 극복함, (6)신랑후보자 혹은 신부후보자의 탁월성·신이성이 증명됨, (7)왕 또는 신에게 정신 혼사로 인정받음; 박두미, 「서사문학에 나타난 혼사장애담」, 원광 대 석사, 2008.

19) 『李王世子 御婚儀期』, 『매일신보』, 1916.8.5.

20) 오타베 유지, 황경성 역, 『낙선재의 마지막 여인』, 동아일보사, 2009, 96쪽.

월 1일 추밀원에서 “황족 여자는 왕족 또는 공족에게 시집가는 것이 가능함”이라는 한 줄이 추가된 황실전범 증보안이 가결됨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다. 그리고 다음날인 2일 황족회의에서도 가결되어 같은 달 28일 공포되었다.²¹⁾

처음 혼약 기사가 실리던 시기에는 규정에 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암시적’으로만 언급하던 『매일신보』에서는 1918년 1월에서야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다.

첫째 리왕세조년하씌셔 일본황족의 녀왕면하와 가례를 거행 후 옵심은 실로 전 터에 둑지 못했던 성소이심이오 또 황실전범에 황족녀왕면하의 혼인은 황족과 화 족에 한흔다는 규명이 잇슴으로 녀왕면하씌셔 도선왕족과 혼인을 허시라면 불가 불 황실면범의 규명을 끽치게되야 황족회의가 츄밀고문회의를 것쳐 면황폐하의 측지로 황실면범일부를 기경호시게 되신 줄 승문호얏스며 그 다음에는 도선왕족 은 엇더흔 의식을 의호야 가례를 헥호옵실는지 이러한 의식과 절차를 규명할 왕 가의 면범은 명치련황씌셔 싸로히 명호실줄로 조셔로써 반포호옵신 일은 계셨스나 아직식지 제령발포는 되지 안이호앗슴으로 예실 제도심의회에서는 작년 봄부 터 「리왕기규범」의 제명을 시작호야 지난 겨울로 그 편찬을 맛축고 방금 축밀고 문회의에 조순호시는 중인바 머리도 이월중에는 측지를 무려서 발표되리라 승문 호얏슨즉 이 「규범」이 발표되는 날에는 엇더흔 의식에 의호야 엇더흔 절차로 가례를 헥호옵슬는지 분명히 결명이 되옵실 터이라. 우에 말흔 바 두가지의 궁중대 스가 결단호신 뒤에는 아마 리본궁에서와 리왕가로부터 녀왕면하와 왕세조년하의 혼례를 직가호야 주십사고 면황폐하씌 측지를 주청호야 우익호신 측지가 계신 후에 궁내대신이 발포호여야 비로소 량면하의 가례는 공식으로 결명되시는 차례이다.²²⁾

위의 글은 앞서 서술한 일본에서 1916년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황실전범에 대한 일련의 논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즈음 이토 미요지가 조선총독부 측의 정보를 제공받은 뒤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조선 왕족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는 ‘왕공기궤범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함(1917.12.17)으로써 이은의 결혼 및 이들의 법률적 지위 문제를

21) 황실전범 개정과정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오타베 유지, 『낙선재의 마지막 여인』, 황경성 역, 동아일보사, 2009, ‘황실전범증보’장(章) 참조

22) 「御成婚의 内準備」, 『매일신보』, 1918.1.30.

해결하고자 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²³⁾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서서히 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 1917년 말~1918년 초였던 것이다.

그리고 1918년 9월부터는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지고 있다. 「王世子殿下 嘉禮舉行에 對호야」를 통해 이은의 결혼이 이듬해 봄 또는 가을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이유가 왕공가례법 심의와 마사코의 학업, 이은의 저택 공사 등으로 제시된다.²⁴⁾ 그리고 10월에 다시 왕공가례법에 대한 각의(各議) 제출 소식이 실리면서²⁵⁾ 그 문제가 내각의 변화 등과 함께 이은의 결혼이 미뤄지는 이유라고 보도했다.²⁶⁾

그러다가 황실전법 증보안이 가결된 11월 2일 「황실전법 개정」이 기사로 게재되면서, 그 동안 두 사람의 결혼이 자꾸 연기되어왔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된다. 즉 이은의 결혼이 부딪힌 ‘혼사 장애’가 “婚儀의 節次에 대한 事項이 問題가 된 것”이고, “問題의 中心은 王公家의 規範에 在 험이 안이오 皇室典範의 詔文解釋에 관한 疑義이라”²⁷⁾라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매일신보』는 이 지난한 중간과정에 대해선 거의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았다. 황실전법과 관련된 논쟁 당시로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고,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전까지는 설불리 공론화하기 부담스러운 ‘장애’였던 것이다. ‘혼사 장애’는 ‘장애’이기는 하나 대중 서사에서는 ‘극복’되어야 하는 장애이다. 대중적 서사의 플롯은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중 서사물은 독창적인 상황을 창조하지 않고, 이미 알려져 있고 독자 대중이 수용하고 사랑하는 토포스적 상황들의 목록을 조합한다. 독자들이 대중 서사물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 가치 체계들의 문제적이고 극적인 전복이나 새로운 형식적 경험들의 제시가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것들이다.

23) 오타베 유지, 황경성 역, 『낙선재의 마지막 여인』, 동아일보사, 2009, 104쪽.

24) 「王世子殿下 嘉禮舉行에 對호야」, 『매일신보』, 1918.9.12.

25) 「王公家軌範」, 『매일신보』, 1918.10.16.

26) 「嘉禮는 來秋乎」, 『매일신보』, 1918.10.20.; 「세자전하의 가례는 언아씨에 거행 되시난가」, 『매일신보』, 1918.10.24~25.

27) 「皇室典範改正」, 『매일신보』, 1918.11.2.

즉, 독자들에게 익숙한 서사와 가치들을 반복해 주기를 바란다.²⁸⁾ 따라서 극복될 가능성이 없는 지나치게 어려운 장애물은 서사에 등장해선 안 된다.

1916년부터 1920년에 이르기까지 이은의 결혼에 대한 보도 과정도 이처럼 대중들에게 익숙한 문법을 따라 전개되었다. 2년여 동안 갑론을박이 오고갔음에도 이 문제가 신문 상에서 ‘갈등’으로서 표면화된 것이 하라(原)내 각으로 바뀌어 이 문제의 적극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즉 ‘극복 가능한’ 혼사장애였음을 확신한 1918년 하반기 이후인 것도 그러한 이유일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확실히 황실전범 중보안이 가결된 1918년 11월에 들어서에서야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도 하고²⁹⁾, 이 개정안이 황족회의에서 비로소 통과되었다는 소식³⁰⁾, 이 개정안에 대한 어친제(御親祭)와 봉고(奉告)를 올린다는 소식³¹⁾, 28일에 보고제를 거행할 예정이며 천황의 칙허가 있으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식을 올릴지도 알 수는 없다는 소식 등이 거의 매일같이 신문에 상세히 실린다.

이제 황실전범 개정이 완료되었고, 이를 발표하는 절차만 남았으니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은 확정적인 것이 된다. 선남선녀의 결혼 예정, 혼사 장애, 그리고 이의 극복을 통한 화려한 해피엔딩이 순차적으로 『매일신보』를 통해 보도되고 있었던 것이다.

2-3. 일선동조(日鮮同祖)의 역사적 재구성

한편 『매일신보』는 황실간의 결혼은 구미에서도 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하고 이완용, 이기용(李琦鎔), 한창수(韓昌洙) 등 친일적 인사들을 동원하기도 하여 이 결혼에 대한 동조의 명분론과 여론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이왕에 이등통감은 구미각국과 又치 僑民황실에서 호인의 의를 떠져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자 진력호약고 그 뒤에 사니총독도 이 일에 덕호야 미우 힘을 쓰던

28) 음베르트 에코, 김운찬 역, 『대중의 슈퍼맨』, 열린책들, 1994, 105쪽.

29) 「典範一個條追補」, 『매일신보』, 1918.11.3.

30) 「皇族會議」, 『매일신보』, 1918.11.4.

31) 「御親祭와 奉告」, 『매일신보』, 1918.11.12.

중 일본 황실에서도 점점 의론이 순호게 진행되어야 임의 삼년전부터 뉘명된 바이 잇셨더라.³²⁾

國과 國의 間에도 可히 離치 못할 親緣이 生호니 동양에셔도 日韓兩國은 위선
 奉先³³⁾야 兩皇族間에 結婚³⁴⁾시기를 願³⁵⁾하는 바 | 라(...)
 此御婚儀는 無上의 慶事인
 터 今日과 如히 併合³⁶⁾야 同國이 된 後인즉 同是³⁷⁾皇族間의 결혼은 당연한 事 | 라
 흘지나 朝鮮에 對³⁸⁾야는 실로 形言기 難³⁹⁾慶幸事 | 라³⁹⁾

王世子殿下와 梨本宮女王殿下의 御慶事는 内鮮人의 結婚에 範을 表⁴⁰⁾하고
 内鮮人の 結婚도 漸次 實行되야 内鮮人一家의 理想이 실지로 現出⁴¹⁾될 것이 不遠에
 在⁴²⁾ 줄로 思⁴³⁾고⁴⁴⁾

古來로 兩民族間에는 幾百千幾十萬의 婚儀를 結⁴⁵⁾하았는듸 特히 同一⁴⁶⁾ 帝國이
 된 今日에 至⁴⁷⁾야 我皇族과 王家間에 御婚儀를 結⁴⁸⁾하다⁴⁹⁾면 此는 日鮮同化를 爲
 へ야 非常⁵⁰⁾ 幸福이라 へ노리⁵¹⁾

위와 같이 처음 두 사람의 결혼 예정이 발표된 직후 친일 인사들의 발언은 양국 지배계급의 결합은 무한한 경사이고, 내선결혼의 모범이며, ‘내선인 일가(内鮮人一家)의 이상’을 현출하는 것이라며 극찬 일색이다. 이 중에서 도 마지막 인용문의 이왕직 차관의 말과 같이 두 사람의 결합을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존재해 왔던 ‘양국민족간의 혼의’가 재개된 것이라는 언급은 주목을 요한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이 이은과 마사코에 의해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거나, 일제의 강점에 의해 새롭게 강요된 결혼 형태인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은 ‘일본은 나중에 온 정복자와 선주민족과 그 밖의 혼합’이라는 혼합민족론을 바탕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근접성을 주장하는 논리이다.³⁶⁾ 이 논리는 왜곡된 고대사라는 과거

32) 「宮家莫大의 慶」, 『매일신보』, 1916.8.4.

33) 「無上의 慶事-伯爵 李完用氏 談」, 『매일신보』, 1916.8.4.

34) 「內鮮人結婚의 範-男爵 韓昌洙氏 談」, 『매일신보』, 1916.8.4.

35) 「實로 當然한 事-小宮李王職次官談」, 『매일신보』, 1916.8.4.

36) 박성진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119쪽.

에 의거하여, 1910년을 전후로 인류학, 언어학, 역사학계에서 이론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일선동조론은 한일병합을 침략이 아니라 ‘고대로의 복고’라고 합리화시키는 데 있었다.³⁷⁾ 이처럼 일선동조론을 토대로 한 내선결혼의 유구한 역사성은 이들의 결혼이 확정되고 결혼날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1918년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往古 日鮮交通의 盛行한 약속 時代에 日本貴族과 朝鮮貴族의 間에 婚嫁의 行
한 事跡이 歷史에 散見되나니³⁸⁾**

兩婚儀를 勅許한 聖旨는 과연 惶悚한 報答을 바를 不知한 노라 此兩宮의 御婚儀는 內鮮人同化의 好模範을 表示함인즉 吾人民된 者는 아모조록 皇化를 蒙한 애急速히 同化한 域에 達키를 希望한 바이며 또 內地人과 朝鮮人으로 밀하면 五六百年以來로 交涉이 多少疏隔된 感이 有해되 其前으로 言하면 皇室 간에 結婚한 事實이 多有하고 從한 애 民間의 雜婚이 頻繁한 애던 것이라 如斯한 歷史關係도 有흔즉 自今以後로는 內鮮人이 益益親密을 加하고 同化의 實을 舉 하기에 努力한 애써 莫重한 皇恩을 報答키를 希望한 門이로라³⁹⁾

일선동조론은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이 고대에 동족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민족이 되어 있으니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⁴⁰⁾ 오륙백 년 아래로 즉, 조선왕조가 들어선 즈음부터는 두 나라간의 교섭이 다소 소원해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는 두 나라의 황실간에 결혼한 ‘사실이 다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은 옛 전통을 되살리는 일이며 ‘필연’이다. 이것은 이들의 결혼을 일제에 의한 정략적, 강압적 결혼이라는 정치적 본질을 은폐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오래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운명적’인 어떤 것으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

37) 와타나베 아쓰요, 「일제하 조선에서 내선결혼의 정책적 전개와 실태-1910~20년 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2004, 15쪽.

38) 「祖說황실전범증보」, 『매일신보』, 1918.12.2.

39) 「世子嘉禮勅許」, 『매일신보』, 1918.12.7.

40) 와타나베 아쓰요, 「일제하 조선에서 내선결혼의 정책적 전개와 실태-1910~20년 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2004, 16쪽.

3. 낭만적 사랑과 결혼으로서의 ‘내선결혼’

3-1. 셀러브리티(celebrity)로서의 이은과 이방자

『매일신보』에서 이은은 순종이나 고종보다도 훨씬 더 주목받는 왕족의 일원이었다. 그의 일본에서의 생활은 수시로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고, 그가 조선을 방문할 때면 조선에서의 체류기간 내내 그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신문에 상세히 게재되었다. 1907년 12월 5일 조선을 떠나 1911년 7월 23일 이은의 생모인 엄황귀비의 장례 때문에 잠시 귀국했던 때 이후 두 번째 방문이 1918년 1월 13일이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두 번의 귀향만이 이은에게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두 번째 귀국 때의 이은의 동정은 조선인들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매일신보』의 관심은 세간의 그것과 비교해도 지나치리만치 과도한 것이었다. 이은이 귀국한다는 소식이 1918년 1월 8일 「世子殿下 御帶在中에」에서 처음 보도된 이후부터 그가 다시 일본으로 출발한 다음날인 27일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그에 관한 소식이 신문에 실린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는 ‘이왕세자전하’ 특집의 연재로 처음 동경에 갔을 때부터 그 간의 일본에서의 생활을 총 6회에 걸쳐(1918.1.8~13) 상세하게 정리했다.⁴¹⁾ 이 연재 도중에도 그가 서울에 도착한 1월 13일에는 신문 1면 전면을 다음의 왼쪽 그림과 같이 이은의 귀경에 대한 환영으로 채우고 있다.

그리고 연재가 끝난 뒤에는 그에 대한 사설(社說)을 신기도 하고⁴²⁾ 그가 조선에 왔을 때 속소로 사용할 석조전(다음의 오른쪽 그림)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⁴³⁾ 심지어는 그가 좋아하거나 즐겨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까지⁴⁴⁾ 도착한 뒤부터는 그가 들르는 장소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가 행한 활동, 발언한 말들이 신문 1면에 생생한 화보와 함께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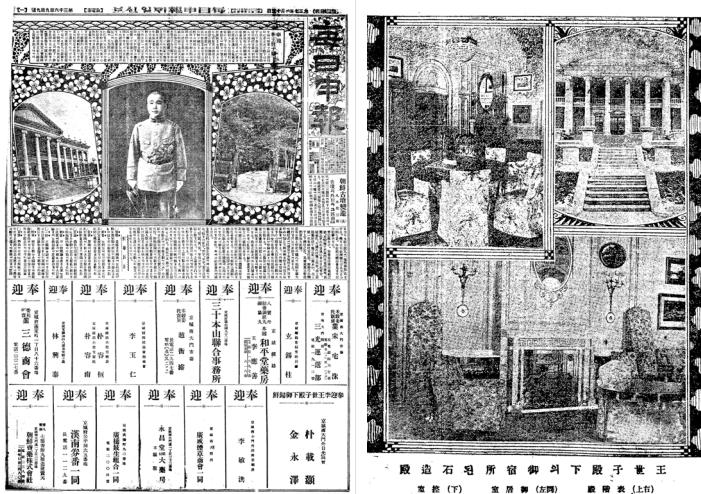
41) 그 연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十年間의 御奮闘」(1.8.), 「伊藤太師의 墓前에」(1.9), 「明治大帝의 御仁愛」(1.10), 「桃山御陵에 參拜한 사」(1.11), 「想像難及의 御勤勞」(1.12), 「多方面의 御趣味」(1.13)

42) 『社說李王世子殿下』, 『매일신보』, 1918.1.15.

43) 「王世子殿下의 御宿所 된 石造殿」, 『매일신보』, 1918.1.15.

44) 「日本料理를 稱讚한 심」, 『매일신보』, 1918.1.22.

는 평소에 『매일신보』에서 이왕가에 관한 기사들을 게재하는 빈도수, 관심도와 비교할 때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이은은 신문에서 다른 그 어떤 인물 보다도 주목받은 ‘스타’였다.



이러한 집중 보도는 1918년 8월에 그가 다시 나흘간의 비공식 일정으로 귀국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⁴⁵⁾ 그런데 그의 결혼이 정해지고 난 이후부터는 마사코도 이은처럼 조선의 ‘스타’가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녀의 가족, 성격, 재능, 외모 등에 대한 기사는 두 사람의 혼약 발표가 있은 뒤부터 종종 소개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방자의 신부수업이 시작되자 「方子殿下의 御教養係 選定」(『매일신보』, 1918.10.5)이라는 기사를 통해 그녀의 교양교육을 담당할 사람이 선정된 사실과 그 교육을 맡게 된 시립 탁미심상고 등소학교(琢美尋常高等小學校)의 훈도 나가야마 데이이고(中山貞子)에게 그

45) 「슬하에 시탕호실 차로」(『매일신보』, 1918.8.27); 「세자전하 어입경기」(『매일신보』, 1918.8.28); 「십일간의 어여정」(『매일신보』, 1918.8.28); 「태왕전하 자애하에」(『매일신보』, 1918.8.29); 「이왕세자전하」(『매일신보』, 1918.8.30); 「세자전하 동정」(『매일신보』, 1918.8.31); 「경사롭게 지나시는 탄신의 낙축연」(『매일신보』, 1918.8.31); 「부왕전하의 고별하시고」(『매일신보』, 1918.9.3.).

일을 맡은 소감을 인터뷰를 한 내용까지 상세히 실린다. 또한 그들의 결혼이 황실전범 개정 이후 확정되고 나자 그녀의 일상과 결혼을 위한 준비 과정이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한다. 「왕세자전하의 가례기 결정」(『매일신보』, 1918.11.13.)에서는 그들의 결혼 날짜가 1월로 정해졌다는 소식과 함께 결혼식 후 종묘에 참배할 때에는 “비(妃)연하도 도선옷을 입으신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방자여왕전하」(『매일신보』, 1918.11.21)에서는 결혼식 때 쓰게 될 귀금속과 옷 등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御調度品 도제의 하명을 밖은 횡빈의 양복지봉담치방주”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 이후에도 마사코 가문이 공식 청혼을 받고⁴⁶⁾, 이에 대한 회답을 위해 마사코의 부친 모리마사(梨本宮守正)가 임자(任地)인 교토에서 도쿄로 돌아온 것⁴⁷⁾, 마사코의 시중을 들 시녀를 두 명 골랐다는 것⁴⁸⁾, 청혼에 대해 정식으로 회답을 보낸 것⁴⁹⁾, 왕세자 측에서 채단을 보낸 일⁵⁰⁾ 등 결혼준비의 진행과정이 세세하게 보도된다.

또한 그들의 결혼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거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6회에 걸쳐 미리 소개된다. 이때 연재된 기사의 제목, 날짜, 소제목은 다음과 같다.

날짜	기사 제목	기사 소제목
1918/12/20	嘉禮前記(1)李王職次官 國分 象 太郎氏 謹話	日鮮創有의 盛儀-가례는 이러케 거행되신다
1918/12/21	嘉禮前記(2)李王職次官國分 象 太郎氏 謹話	宮中三殿에 御參拜-엄숙한 납치식과 고교식-방조녀왕연하 궁중삼년에 고별의례
1918/12/22	嘉禮前記(3)李王職次官國分 象 太郎氏 謹話-莊嚴 乎 읍신 御婚式	리왕연하 쓰시든 하관 리궁에 량연하는 레복으로 일본 고덕례식의 초례
1918/12/23	嘉禮前記(4)李王職次官國分 象 太郎氏 謹話-兩陛下의 朝見禮	량폐하식서 친히 잔을 나리신다
1918/12/24	嘉禮前記(5)-花爛春城의 漢陽에	량연하어동렬 경성에 오사 여러가지 의식을 헉하시고 잔치를 베푸신다
1918/12/25	嘉禮前記(6)-慶事前의 兩殿下	여왕연하는 도선말을 빙오셔 왕세조년하는 군무와 공부에 주야분명호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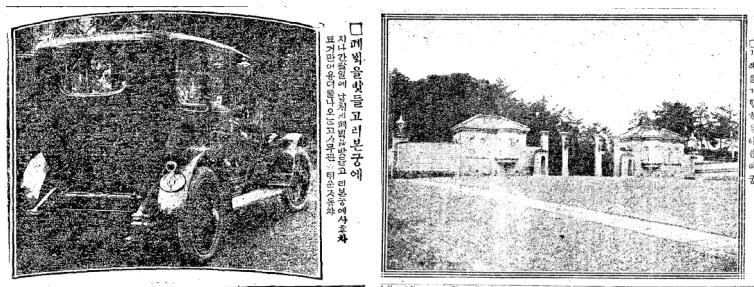
46) 「請婚의 旨를 奉하야」, 『매일신보』, 1918.12.3.

47) 「梨本宮 御歸京」, 『매일신보』, 1918.12.4.

48) 「方子殿下 侍側 乎 女子 두 명을 선획 乎 심」, 『매일신보』, 1918.12.4.

49) 「御婚約 正式成立」, 『매일신보』, 1918.12.6.

50) 「최단을 밟들고 리본궁에」, 『매일신보』, 1918.12.13.



이러한 결혼식 행사계획을 보면 그 결혼식이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질 것 인지를 짐작케 한다. 폐백을 밟들어 리본궁을 방문하는 사무관을 태운 최신식의 자동차 사진은 이들의 혼수가 얼마나 고가(高價)인지를 상상하게 만들었고⁵¹⁾, 결혼식을 거행할 하관의 리궁의 전경을 담은 사진⁵²⁾은 그 장소의 광활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만큼 이들의 결혼은 곧 ‘축제’였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기사와 같이 결혼 전에 이미 한 가족처럼 식사를 하고 이은과 마사코 둘만의 오붓하고 낭만적인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가족을 이룰 준비를 마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삽곡(澀谷) 리본궁가와 도거판 리왕세조데에는 리왕세조 덴하와 리본궁 방조녀왕면하의 가례택일이 작정된 뒤로 ○○의 치운 일그가 벌써 부드러운 봄바람을 맛는 것 갓치 변화흐야져서 지나간 심일 육화(六花)가 헛날니든 날에도 오후 여섯시경에 리왕세자 덴하께서는 사무관 이하 십여 명의 수원을 다리시고 리본궁 데에 가시와 리본궁 두 덴하와 방조녀왕 덴하와 만찬을 갖치 바드셨는디 그날 방조녀왕면하께서 입으신 순일본식의 복장은 눈이 부실만큼 아름다웠고 리왕세자 덴하와 한 시간 동안이나 뒤면흐시와 이야기이흐셨스며

특히 리본궁여너의 설경은 이날밤 두 분이 맛나시는 쪽를 더욱 아름다웁게 헉 앗더라.⁵³⁾

눈이 내리는 겨울 밤 왕세자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약혼녀와 이야기를 나

51) 「폐백을 밟들고 리본궁에」(사진), 『매일신보』, 1918.12.12.

52) 「가례를 거행 헉실 하관 리궁」(사진), 『매일신보』, 1918.12.15.

53) 「慶事로운 嘉禮前에 兩殿下의 御會食」, 『매일신보』, 1918.12.17.

누었다는 위의 묘사는 어느 소설에 나올 법한 동화적인 장면이다. 그야말로 모두의 축복 속에 결합하는 행복한 한 쌍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들의 관계를 낭만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동경하게 만들 수도 있을 만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결혼은 만인의 축복 속에 치러질 말 그대로 ‘경사(慶事)’로 재현되었다.

皇室典範增補가 成호야 王世子垠殿下와 利本宮方子女王殿下의 御婚儀는 正式으로 進展하게되고 不遠에 御慶事を 見하게 된 日에 至호았음으로 李王. 李太王 兩殿下를 爲始호야 御族의 御滿足은 毋論이오 朝鮮貴族 以下 朝鮮人側知識人階級은 日鮮一家의 實이 始舉호았다고 ○ 히 歡喜하는 바 從호야 一般朝鮮人側의 民心에 及호 好影○은 盖莫大호더리⁵⁴⁾

3-2. 일선기정(日鮮家庭)의 ‘스위트홈’ 재현

이처럼 결혼의 절차까지 빈틈없이 준비된 이들의 결혼의 서사를 완성시켜 줄 마지막 페이지는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를 구현하는 것이다. 실상 이것은 그들이 결혼을 한 뒤, 그들의 삶과 행보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매일신보』는 그 전에 이들의 결혼을 완결된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서사로 만들고 싶어 했던 듯하다. 이를 위해 『매일신보』가 기획한 또 하나의 연재 기사가 “이 경사로온 사례날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 쪽에 도선에서 남보다 일족이 뇌디인과 결혼을 헤여서 원만한 가령을 일우어 오는 사름의 가령을 방문하여 보는 것”⁵⁵⁾을 취지로 한 「왕세자전하 가례 전에 일선동체의 가정 방문」 시리즈였다. 이은과 마사코가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 것임을 예견할 수 있도록, 그들 이전에 이미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결혼한 가정의 구체적 현존 증거들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 기획 연재 기사에서는 총 다섯 가정을 방문 인터뷰하였는데, 조중응⁵⁶⁾, 구연수⁵⁷⁾, 안상호⁵⁸⁾, 김현태⁵⁹⁾, 도변옹차랑⁶⁰⁾의 가정이 그 대상이었

54) 「皇典增補와 一般民心」, 『매일신보』, 1918.12.1.

55) 「王世子殿下 嘉禮前에 日鮮同體의 家庭訪問 同苦樂의 十年」, 『매일신보』, 1918. 12.8.

56) 조중응(趙重應, 1860~1919)은 1907년 이완용 내각에서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다. 이은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실은 연재 기사인 만큼, 마지막의 도변옹차랑을 제외하고는 4회 모두 조선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사례이다. 이 연재에서 특징적인 점들은 첫째, 이들이 중상류층 이상의 가정으로서 잘 꾸민 집의 풍경이 자주 묘사된다는 점, 둘째, 여성아내에 의한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부각된다는 점, 셋째, 조선의 발전을 위해 가정 개량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이것의 선봉에 선 것이 일선가정이라는 것, 넷째, 이은마사코 결혼에 대한 지지 및 축하의 언급을 노출하는 점 등이다.

아래의 묘사들에서 보이듯 이들의 집은 서양식 또는 일본식이 절충된 가옥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전통 주택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사랑(舍廊)’ 대신 ‘응접실’이 언급된다거나, 안락의자, 책상 등의 좌식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등의 대목에서 이 집들이 신식으로 꾸며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부유한 가정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⁶¹⁾

영락령 뒤클목에 한정호 자작데는 싸뜻한 아침벗을 양명흐게 밟었다. **옹접실**문을 연즉 히당화 콧봉오리갓흔 자작의 짤님 숙호(淑號)양이 안락의자에서 쇠를 보다가 고사리갓흔 손을 두 무릎에 둘이고 은방울을 흔드는 듯한 목소리로 어서 드러오라고 혼다.⁶²⁾

등을 지내면서 매국행위에 앞장섰고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 57) 구연수(具然壽, 1866~ 1925)는 을미사변 때 민비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로 사건 후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1907년 민비시해사건 가담자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지자 귀국하여 조선총독부의 경무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냈다.
- 58) 안상호(安商浩, 1872~1927)는 조선인 최초의 의사(서양근대의학) 자격증을 취득한 인물이다. 이왕직 촉탁의로 재직 중이던 1919년 고종의 진료를 맡았다가 고종 독살설에 휘말리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가 독살을 했을 가능성은 여러 정황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오해를 살만큼 그가 친일적인 인물로 보인 데에는 이 연재에서도 보이는 철저히 ‘일본화’된 그의 가정사도 한 몫 했던 것으로 보인다.
- 59) 일본대학 출신으로 졸업 후 가업을 이어 포목점을 운영하였다.
- 60) 도변옹차랑(渡邊應次郎)은 경시총감부 통역관이었다.
- 61) “드러가는 중문간까지 조금도 일본 사람이 사는 집갓지 안이호” 김현태의 집의 경우도 있기는 하나, 집 안에 중문까지 있을 만큼 큰 집인 것으로 보아 역시 중상류층 이상의 가정임을 짐작하게 한다.
- 62) 「王世子殿下 嘉禮前에 日鮮司體의 家庭訪問-同苦樂의 11年」, 『매일신보』,

영락녕 이명목 뉌디인 동너 가운데에 있는 구연슈(具然壽)씨의 관사를 방문⁶³⁾ 았다. 뉌디인 동네에 화양결충식 관사는 도션 사람의 쥬퇴갓지논 안이흔덕 정문을 두다린즉 한 도션 하인이 나와서 으드를 혔다. 서양식 응접실에서 화복을 수수 흐게 입은 구씨를 만나보고 인사가 있은 후에...⁶³⁾

남산밋 육령(旭町) 막바지에 도션집을 일본식으로 짊인 씨의 쥬퇴 온돌방에셔 반씩이 된 수염을 어루만지고 턱연히 안진 씨를 맛나 보았다. 청동화로 빙탄 숫에 소상반죽은 인이지만은 긴담비드가 노인 것과 최상밋해 노인 자기그릇은 도션 사람의 사랑에 일본 약염을 죠곰 쪄린 듯하다.⁶⁴⁾

‘스위트 홈’의 기본 토대는 바로 이와 같은 ‘좋은 집’이다. 한국에서 192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문화주택’의 열풍⁶⁵⁾이 아직은 불지 않고 있으나, 전통적 한옥의 단점들을 개선한 신식 가옥은 이미 1910년대 중반부터 ‘행복한 가정’의 첫번째 조건이었다.

1915년에 최초로 열렸던 가정박람회의 뜨거운 호응에서 이미 확인하였듯⁶⁶⁾ “남의 집 ‘대문’을 열어” 전시한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특정 형태의 주택을 동경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⁶⁷⁾ 그리고 이를 ‘모델’로 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집도 이상적인 집(스위트 홈)으로 만들고자 했다. 일선가정의 방문기는 위와 같은 묘사를 통해 일선 가정의 주택이 스위트홈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또 한 가지 요소는 자녀였다. 조중옹에게는 ‘꼿봉 오리’같은 딸이 있고, 구연수에게는 전실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잘 양육하는 아내가 자랑거리이다. 오남매를 둔 안상호의 집은 아이들로 인해 활기가 넘치며, 십남매를 둔 도변옹차랑은 그야말로 ‘온 집안의 가득한 화기’로 ‘식철

1918.12.8.

63) 「王世子殿下 嘉禮前에 日鮮同體의 家庭訪問·前室의 所生을 고출갓치 스량한다 고」, 『매일신보』, 1918.12.9.

64) 「王世子殿下 嘉禮前에 日鮮同體의 家庭訪問·和氣가 融融한 도변옹차랑씨의 가정」, 『매일신보』, 1918.12.12.

65) 이경아, 「일제강점기 문화주택 개념의 수용과 전개」, 서울대 박사 논문, 2006.

66) 백지혜, 『스위트 홈의 기원』, 살림, 2005, 19~37쪽 참조.

67) 백지혜, 『스위트 홈의 기원』, 살림, 2005, 21쪽.

에 봄바람이 이러나’는 ‘유복한’ 가정이다.⁶⁸⁾ 특히 구연수의 일본인 아내는 전처(조선인 아내)의 자식을 ‘신식 교육’으로 ‘일본인’처럼 길러낸 현모(賢母)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이겼셨고 또 나의 주견이 쑥 신식으로 한번 교육을 식이라고 저의 계모에게 길이우게 헛았는디 너주는 이것을 제가 나은 자식처럼 길너셔 지금은 너디 사람과 조금도 틀닐 것이 업지요”라는 남편의 아내 자랑에서 보이듯 여성의 자녀교육에서 큰 역할을 하는 모습은 근대적 가족의 중요한 요건을 갖춘 ‘스위트 홈’의 전형이다.

근대의 새로운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력은 약화되고, 모성적 애정과 여성의 아동양육에 대한 통제권이 증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성과 모성이 결합된 여성의 새로운 섹슈얼리티가 구성되었고, 이것이 근대의 낭만적 사랑과 그에 따른 결혼을 유지하는 주요 요소가 되어왔다.⁶⁹⁾ 때문에 일선가정에 대한 연재에서도 가정 개량과 자녀 교육의 담당자인 ‘가정주부’로서의 여성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의사 안상호의 일본인 아내가 “사랑스러운 어린 아히들에게 싸이여서 「나는 조금도 조선사람 헛고 양관이 업슴으로 일본에서 사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업고 열한히동안을 도션에 잇섯셔도 도션말은 한마디 못하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갓치 아히들이 만혀셔 출입도 잘 못하요.”⁷⁰⁾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도 자녀 양육이 근대적 가정에서 여성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임무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모든 가정의 개량이 본격적으로 주창되었던 것은 1920년대의 ‘신가정론’과 ‘양처상 및 주부론’이지만⁷¹⁾ 1910년대 중반부터 대두된 새로운 가정에 대한

68) 김현태의 가정은 “슬흐에 아직 혈육이 업는 것이 걱정”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기는 하나, 대신에 “꼴과 갓치 달콤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이고, 아내가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한다는 점에서 “실로 진귀”한 가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王世子殿下 嘉禮前에 日鮮同體의 家庭訪問-良妻賢婦로 세상에 듬온 김현 틱부인」, 『매일신보』, 1918.12.11.

69)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87쪽.

70) 「王世子殿下 嘉禮前에 日鮮同體의 家庭訪問-全然히 内地化」 흔 의식 안상호씨의 가정, 『매일신보』, 1918.12.10.

71)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정』, 소명출판, 2009, 357쪽. 김수진에 따르면, ‘신가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애정적 부부관계, 양처와 주부, 단가살림, 그리고 합리적, 위생적 주거생활이었다고 한다.

이상적 모델이 일본인 가정에 대해서는 이보다 몇 년 일찍 기대되었던 셈이다.

일선 동화를 헤라면 첫지도 도션의 가명을 끗쳐야만 헤겠셔요(...)도션에 부랑자가 만히 싱기는 것도 가령이 불완전한여서 그러한지 안아요(...)이번에 세조년 하로 말삼한드리로 상당한 학업을 맛치시고 션연이 넘으신 후에 혼인을 헤시지 인이 헤야요 이번의 경스를 모범으로 헤야셔 가령과 혼인제도를 끗치였스면 도켓셔요 일선동화의 근본은 가명을 기량한는 뒤에 잇셔요⁷²⁾

도션의 사화를 기척한라면 매일 인종을 기량한여야만 헤야요 인종을 기량한라면 너디인 안희를 만히 다려와야 헤여요 너지인을 보고 외하라버지니 외삼촌이니 쳐남이니 헤는 날이라야 도션이 좀 잘될 터이지요. 엊지 그러한냐하면 첫지로는 자식을 가라치는티에는 어미가 잘한여야 헤는뒤 암만 헤야도 도션 녀인은 그러한지 못한지요. 밧분 세상에 일을 주장한라면 성활을 간단하게 고쳐야 헤겠지요. 그러한자면 너디인이 아니고는 할 수 업슬줄 싱각한야요⁷³⁾

요컨대 이 다섯 쌍의 내선결혼 부부들은 제각각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결국 모두 근대적인 ‘스위트 홈’에서 행복하고 매우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에 대해서도 매우 잘 된 일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일신보』는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조중응은-인용자 주)『왕세조연하의 가례로 말씀한면 너가 매일 먼저 이동통감에게 전복한 일인디 지금에 와서야 실현이 되았네 그려....』하고 깃벼한눈듯 자랑한는 듯한 기식을 보인다(...).부인은 숙덕이 가득한 그의 얼굴을 고마워하게 향하고 꽃봉오리갓흔 짤을 압해다 다리고 이번에 리왕세자의 가례가 확명되셨슴은 진실로 더없이 경사옵시다.⁷⁴⁾

72) 「王世子殿下 嘉禮前에 日鮮同體의 家庭訪問-同苦樂의 十年」, 『매일신보』, 1918.12.8.

73) 「王世子殿下 嘉禮前에 日鮮同體의 家庭訪問-前室의 所生을 고출갓치 사랑한다 고」, 『매일신보』, 1918.12.9.

74) 「王世子殿下 嘉禮前에 日鮮同體의 家庭訪問-同苦樂의 十年」, 『매일신보』, 1918.12.8.

**이번 리왕세자의 가례로 밀슴흐면 더홀슈업는 경사이야요...故 伊藤公○](...)그
디가 도선에 나가거든 도선의 가령을 아못조록 기량흐도록 하고 서로 혼인을 허
도록 허쇼 그러흐여야만 도션이 속히 빌달흐리라고 허약셔요.⁷⁵⁾**

3-3. 이은-나시모토미야 마사코 결혼을 통한 내선결혼의 대중화 양상

이러한 선전 과정에 대해 대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찾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이를 찬성하는 자들이 결혼 축하 선물을 현상하기 위해 모인다는 기사나 내선 결혼자들의 증가 추세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반향을 얻는 데 성공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今回 李王世子殿下와 梨本宮方子女王殿下의 婚儀가 成立하야 來春 結婚의 御式을 舉하시게 되약습으로 小原新三. 鈴木穆...諸氏가 發起하야 朝鮮總督府官署 高等官 有志가 相謀하야 奉祝의 意를 表키 爲하야 物品獻上의 計劃이 有하야 目下 贊成者勸誘中이라더라.⁷⁶⁾

이방자의 결혼문제가 거론되기 전까지 두 나라 사람간의 결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이 발표되던 시기를 즈음해 상호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교류는 차츰 증가추세에 있었다.⁷⁷⁾ 이러한 정황과 더불어 이들의 혼약 발표는 “국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⁷⁸⁾, 현실에서 접촉이 증가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결혼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갖게 했다. 그리하여 내선결혼 건수는 1912년 116건, 1913년 114건, 1914년 79건, 1915년 76건에서 이들의 결혼보도가 처음 나간 1916년

75) 「王世子殿下 嘉禮前에 日鮮同體의 家庭訪問-和氣가 融融하 도변응차랑씨의 가
령」, 『매일신보』, 1918.12.12.

76) 「李王家 慶事 祝物」, 『매일신보』, 1918.12.13.

77) 처음 이방자의 혼약 발표가 보도되었던 1916년 당시 일본 거주 조선인 인구는 5천 624명이었는데, 그 이듬해에는 1만 4천502명으로 급증했고, 1918년에는 2만 2천411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재일 조선인의 증가 경향의 시기와도 맞물려 이방자의 결혼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재일 조선인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일본인과 결혼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타베 유지, 『낙선재의 마지막 여인』, 황경성 역, 동아일보사, 2009, 90~91쪽.

78) 내선결혼자의 통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金英達, 『朝鮮王公族の法的地位につ
いて』, 한국문화연구진흥재단 편, 『靑丘學術論集』, 1999.3. 참조.

에 14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⁷⁹⁾ 그리고 1917년은 121건, 그리고 이은의 결혼에 관한 확정 보도가 가장 집중되었던 1918년에는 151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이들의 결혼 보도를 통해 대중들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소거해나가고 있었다.⁸⁰⁾ 또한 『매일신보』는 이은의 결혼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새로운 선전 전략을 세웠다. 그것은 1919년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은의 결혼을 앞두고 「奉賀王世子嘉禮」를 시제(詩題)로 하여 칠언율의 창작 한시를 공모한 ‘가례봉하시(嘉禮奉賀詩) 모집’이었다. “王世子 殿下께서 梨本宮 方子女王 殿下와 婚儀가 完定되시와 今月二十五日로써 東京에서 嘉禮를 舉行할 시게 됨은 實로 內鮮 兩地에 在한 空前의 威儀일 뿐 안이라 內鮮의 眞實한 融合 同化를 促進함에 最高且 最善한 模範이라. 吾人은 此大慶을 讀者諸位와 共히 奉祝하는 誠意를 謹表하기 為한 암호 广 히 江湖人士로부터 奉賀의 詩稿를 菲集해야 嘉禮臨時에 本紙에 揭載하고 更히 此奉賀의 誠意를 徹底히 헌며 後日의 記念을 以作하고자”⁸¹⁾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이 시들을 모아 결혼 선물로 조선 왕실 및 왕세자 부부에게도 현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은 보다 심각한 ‘혼사장애’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1919년 1월 21일 뜻하지 않은 고종의 사망, 그리고 3월 1일의 만세운동이 그것이었다. 두 사건으로 두 사람의 결혼은 또다시 일 년여의 시간을 연기하게 되었고, 이들의 결혼에 대한 대중적 반응의 실체도 확인이 어렵게 되어버렸다. 당연히 조선인의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다시 커졌을 것이며, 이를 반영하듯 1919년에는 양국인 간의 결혼이 68건으로 대폭 줄어든다.⁸²⁾

79) 善生永助, 「朝鮮人の人口現象」, 조선총독부, 1927, 314쪽.

80) 한편 1918년 4월 17일에는 혼인에 관한 일본과 조선 간의 공통법이 공포되었다. 혼인 성립의 요건은 각 당사자가 속하는 지역의 법에 준거하여, 일본에서는 민법에, 조선에서는 관습에 따르기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혼인 방식은 거행지의 법에 준거하고, 혼인의 효력은 남편이 속한 지역의 법에 준거하는 등이 그 내용의 골자였다. 이 법은 황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도 권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일환이었다. ;오타베 유지, 황경성 역, 『낙선재의 마지막 여인』, 동아일보사, 2009, 91쪽.

81) 『嘉禮奉賀詩募集』, 『매일신보』, 1919.1.11. 이 광고는 20일까지 계속 실린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결혼의 ‘낭만적’ 서사는 사실상 1919년 1월 초에 마무리된 것이었다. 혼약을 발표하고, 혼사장애를 겪어내어 결혼을 확정 받고, 최상류층의 선남선녀가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내선결혼의 다른 사례들을 통해 이들 앞에 펼쳐질 ‘핑크빛 미래’의 청사진까지 제시하였으니 이들의 결혼 스토리는 이미 완결된 셈이었다. 물론 고종의 사망과 3.1운동 등으로 또 다시 이들의 결혼이 1년 뒤로 미뤄지지 않았더라면, 실제 이들의 화려한 결혼식과 유럽으로의 신혼여행, 파리강화회의 참석까지 보여줌으로써 행복한 ‘후일담’까지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⁸³⁾ 그러나 1920년은 조선인이 고종의 사망과 3.1운동을 통해 이들 결혼의 낭만성이 ‘허구’임을 온몸으로 체험한 뒤였다. 따라서 이제 이들의 결혼은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허위의식을 선전하는 데 활용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1920년 4월은 민족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된 뒤였다. 조선인이 만든 이 신문들은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식을 『매일신보』와는 다른 시선으로 조명했다. 즉 이은의 세자비로 간택되었다가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이 결정된 뒤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민갑완에 대한 기사가 게재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식 당일, 이들의 결혼식을 알리는 기사와 같은 면에 민갑완의 부친이 딸의 파혼 이후 충격으로 앓다가 사망하여 그녀가 상종이라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⁸⁴⁾ 이러한 보도는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이 이 두 사람 사이의 ‘해피엔딩의 서사’가 아니라 이은과 민갑완 사이의 ‘비극적 결말’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초점화를 통한 비극적 서사가 쓰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은 대대적인 보도를 해봐야 일본으로서도 별 효과도, 새삼 득 될 것도 없었다. 그리

82) 그러다가 1920년에는 85건, 1921년 124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루어 1922년 228건, 1923년 245건, 1924년 360건, 1925년 404건, 1926년 459건, 1927년 499건, 1928년 527건, 1929년 61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게 된다. ; 善生永助, 「内鮮人の通婚状態」, 『朝鮮及滿洲』, 1935.1.

83) 일본은 이은을 마사코와 결혼시켜 1919년 1월 18일에 개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파리강화회의에 보내기 위해 1919년 가을로 예정돼 있던 결혼을 1월 25일로 앞당겼다. 이들을 통해 일본과 조선이 평화롭고 행복한 결합을 이루었다고 선전 할 계획이었다.;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협사』상권, 서문당, 1979, 143쪽.

84) 「王世子殿下 婚儀가 잇던 裹中의 閔閨秀」, 『동아일보』, 1920.4.28.

하여 이들에 관한 보도는 실제 결혼식이 거행된 1920년 4월 즈음에는 1918년보다도 훨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축소되었고, 그렇게 이들의 결혼 서사의 대중적 시효성은 만료되었다.

4. 결론

1920년에 거행된 조선의 왕세자 이은과 일본의 황족 나시모토미야 마사코의 결혼은 이씨 왕조의 종말을 고하려는 의도였을 뿐 아니라 조선이 일본의 피식민국이라는 사실을 명시화하기 위한 책략이었다. 그럼에도 이 결혼의 과정은 『매일신보』를 통해 대중들에게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의 서사로 포장되었다. 이를 위해 『매일신보』는 이들의 혼약 발표, 혼사장애요소, 시련의 극복, 운명론적 미화, 화려한 결혼식의 준비,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전망 등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중적 서사의 문법을 충실히 치밀하게 따랐다. 1916년 8월 처음 이들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음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황족과 조선의 왕족의 결혼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2년여의 시간 동안 논쟁을 겪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이 과정을 거쳐 황실전범이 증보된 뒤부터는 이들의 결혼이 운명적인 것(일선동조론)임을 합리화했고, 또 최상류층인 만큼 결혼식이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질 것인지를 홍보하였다. 특히 화려한 결혼식과 선남선녀의 애틋한 결혼 전 교류의 모습 등은 이들을 ‘스타’로 만들었고, 대중들로 하여금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정치적 현실의식보다 감상적 동경의 감정이 앞서도록 조장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 ‘선전’이 어떠한 효과를 낳았는지 축하품 모집, 축하시 공모 등으로 확인하려는 작업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낭만적 결혼의 서사는 1919년 1월의 고종의 승하와 3·1운동을 거치면서 ‘허구’임이 판명되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매일신보』, 『신한민보』, 『동아일보』

善生永助, 「朝鮮人の人口現象」, 조선총독부, 1927.

善生永助, 「内鮮人の通婚状態」, 『朝鮮及満洲』, 1935.1.

2. 논문과 단행본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김충실, 「신소설에 나타난 혼사장애 양상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80.

노영희, 「이방자의 자전을 통해 본 한일근대사에 대한 자각과 한계」, 『일어일문학 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2001.11, 379-394쪽.

박두미, 「서사문학에 나타난 혼사장애담」, 원광대 석사, 2008.

박성진,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역사』, 서문당, 1979.

백지혜, 『스위트 흄의 기원』, 살림, 2005.

송우혜, 「이은의 정략결혼 연구-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2007.

송우혜, 『왕세자 혼혈결혼의 비밀』, 푸른역사, 2010.

앤소니 기든스, 배운경 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오오야 치히로, 「잡지 내선일체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양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6.

와타나베 아쓰요, 「일제하 조선에서 내선결혼의 정책적 전개와 실태-1910~2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2004

이경아, 「일제강점기 문화주택 개념의 수용과 전개」, 서울대 박사, 2006.

이방자, 『비련의 왕비』, 신태양사, 1960.

이방자, 『세월이여 왕조여』, 정음사, 1985.

이상택,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83.

장용경, 「일제말기 내선결혼론과 조선인 육체」, 『역사문제연구』 제1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7, 195-214쪽.

정병준, 『제국의 후예들』, 황소자리, 2006.

최석영, 「식민지시기 '내선결혼' 장려문제」, 『일본학연보』, 2000, 259-294쪽.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9.

-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역, 『화려한 군주』, 이산, 2003.
- 오타베 유지, 황경성 역, 『낙선재의 마지막 여인』, 동아일보사, 2009.
- 혼다 세츠코, 서석연 역, 『비련의 황태자비 이방자』, 범우사, 1989.
- 로널드 B.토비아스, 김석만 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 풀빛, 1997.
- 움베르트 에코, 김운찬 역, 『대중의 슈퍼맨』, 열린책들,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romantic representation of the marriage of Lee-Eun(李垠)
and Nashimotomiya-Masako(梨本宮方子)

Lee, Young-Ah

This thesis trie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representing the marriage of Lee-Eun(李垠) and Nashimotomiya-Masako(梨本宮方子). Their mixed-blood marriage was prosecuted in order to show the fall of Choseon(朝鮮) royal family to Korean by the political purpose of Japanese Empire. Nevertheless, Choseon Government-General(Japanese Empire) weaved their marriage into a romantic love story. Choseon Government-General advertised to the public through the press of 'Mae-il sinbo(毎日申報)'. 'Mae-il sinbo(毎日申報)' reported all process of their marriage, that is, the announce of engagement, hardship of their marriage, making plans for the wedding, and the blueprint for their future. Especially their fancy wedding plan and beautiful-looking couple's romantic date made the public accept this political tragedy as a happy event. However, this narrative of their romantic love and marriage was proved to 'false' through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Key words : Lee-Eun(李垠), Nashimotomiya-Masako(梨本宮方子), mixed-blood marriage, representation, romantic love, public narrative)

| 위 논문은 2011년 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6월 1일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